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23-29

오늘은 교단, 교파, 인종, 언어의 차이를 떠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성찬주일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기념하다’의 영단어 remember를 어원 분석하면, ‘다시’(re-) ‘일원’(member)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일체가 되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I. 주의 만찬 Lord's supper : 주의 만찬은 ‘자기의 만찬’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식사, 주님께서 음식이 되시는 식사입니다. 주의 만찬은 유대절기인 유월절 식사와 영적으로 통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생활에서 해방될 때, 유월절 양을 잡아, 피는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음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게 하여(Passover=유월逾越)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주의 만찬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은 희생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란 하나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듯, 성찬은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성된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는 ‘주님의 몸’으로서 분별해야 하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신다면 이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실 뿐입니다. **II. 유카리스트 Eucharist**: 유카리스트는 헬라어로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초기에 성찬식을 “감사의 전례”라고 부른 데서 연유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식사에 앞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성찬은 “대(大)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의 식사가 축성되어 성찬이 됩니다. ▶ ‘감사’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취하신 동작은 네 가지입니다. ① taken: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취하십니다. ② blessed: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거부, 정죄, 비판하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③ broken: 주님은 우리의 자만과 공로, 육체를 깨뜨리십니다. ④ given: 주님 손에서 변화된 우리, 새로워진 우리를 다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패턴을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에 의해 축성 받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깨어졌고, 그 깨진 몸이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III. 참여 communion**: 성찬은 참여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참여란 공동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하면서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은 일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찬으로 모일 때는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서로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IV. 성례전 Sacrament**: 성례전은 ‘거룩한’ 예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 sacramentum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로마 병정이 황제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살 것을 서약하는 식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에서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V. 재림과 천국잔치**: 예수님은 성찬을 재림과 연결시켰고 또한 천국 잔치의 선취로서 간주하셨습니다. 죽음과 희생의 성찬이 소망과 구원과 잔치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고, 형제자매와 결속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